

## 창원공장 광주이전 '시너지 효과'

### 지방경제 중추 '클러스터'

#### 〈2〉 '옵토닉스'의 성공

광주 광융용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인 (주)옵토닉스는 지난해 4월 한국광기술원, 국내 글자의 대기업과 공동으로 초정밀 레이저부품 개발에 나섰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장맞춤형 기술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초연마 가공 및 듀얼이온 빔 스피터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유전박막제 개발' 프로젝트다. 이는 고출력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특수렌즈를 만드는 기술이다. 국비와 회사 비용 등 총 2억원을 들여 1년간 연구개발 끝에 세계 수준의 초정밀 특수렌즈를 국산화하는데



이용범 대표

공장에서 연마·센터링·세척 등 기초가공을 한 뒤 광주로 옮겨 완제품을 생산했다. 문제는 공정이 이원화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시간 손실도 컸다.

제품개발까지도 5년의 시간이 걸렸다. 투자 비용은 모회사인 프로텍트에서 끌어왔다. 다만, 제품개발에 공을 들인만큼 기술력은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광주 광학산업 선도 = 옵토닉스는 지난해 10월 창원공장을 광주로 옮겼다. 첨단산단 내 2000평 부지에 클린룸·검사실·세척실·코팅실·조립실 등을 완벽하게 갖췄다.

### 5년 간 기술 투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 설계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원스톱 공정

성공했다. 옵토닉스는 이 특수렌즈를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공급,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렌즈 개발·생산 광학 전문회사=옵토닉스는 휴대전화·DSLr 등 디지털카메라·액시밀리·프로젝트·자동차 등에 쓰이는 렌즈를 개발·생산하는 광학 전문 회사다. 지난 2004년 광주 첨단산단에 동지를 틀었다. 광장자동화설비를 생산하는 '프로텍트'이 모회사다. 광장자동화설비 제작 과정에서 렌즈가 들어가는 보안용 CCTV 모듈을 만든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초기 광학기술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첨단산단이 광산업 중심이라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가 모자랐다. 활로를 찾아 광학 기술이 발달한 경남 창원에 공장을 세웠다. 창원



광주 첨단산단에 입주한 광학 전문 기업 (주)옵티닉스 직원들이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렌즈를 생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다보고 있다. 또 군수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는 코스타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이용범 대표이사는 "광학기술이 발달한 창원의 우수인력을 광주로 끌어온 게 큰 보람"이라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렌즈시장을 넘어 광전자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개인정보 수집·보관·활용... 별도 동의 받아야

#### 공정위 약관 시정

앞으로 인터넷포털,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사업자들은 이용자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

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동의를 받도록 했다.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

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 법률에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어 인터

파크, 롯데닷컴, 네이트 등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고객에 대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토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내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 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4개 온라인 사업자는 ▲인터넷 포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애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온라인 쇼핑몰 =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소셜 네트워크 = 씨월드(네이트와 동일회사), 미투데이(네이버와 동일회사), 카카오톡 등이다. /연합뉴스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투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 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건강보험료 버는 만큼 더 낸다

복지부, 전월세 사는 취약계층은 부담 줄여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

급 이외에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고액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채를 부과해 기준으로 정하면, 약 153만원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며 이들은 평균 월 58만2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약 20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이를 위해 우선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월세 폭등 영향 '건보료 폭탄' 제거 = 반면 복지부는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우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2년 단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재산항목에 반영한 뒤 재산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

### 맥주값 인상 추진

오비맥주 출고가 9.6%

오비맥주는 카스와 오비 등 맥주 출고가를 약 9.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5일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국세청과 가격 인상을 협의해 왔으며, 19일부터 맥주 제품을 평균 9.6% 올리는 안을 최근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류는 국세청에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어 국세청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오비맥주의 안대로 가격이 인상되면 카스 병맥주 500ml의 출고가격은 1천21.80원에서 1천19.89원으로 오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86.12 (-16.69)



코스닥지수

508.33 (-1.76)



금리 (국고채 3년)

3.36% (-0.03)



원·달러 환율

1126.10원 (+2.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